

공무출장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BFI <한국 초기영화 특별전 Early Korean Cinema-Lost Film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개막식 및 주요 행사 참석
- BFI <한국 초기영화 특별전> 개막식 발표, 영화 상영 전 해설 및 상영 후 질의응답, 패널 디스커션 참가
- BFI 및 주영한국문화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업무 협의
- BFI 견학 및 BFI 미디어테크 아카이브-컬렉션 조사 등

○ 출장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지	기 간	비 고
연구전시팀	사무직 5급	정종화	영국 런던	2019.2.6.~2.20. (13박 15일)	

○ 출장 세부일정

월일(요일)	방문장소	업무수행내용
2.6(수)	영국 런던 BFI 사우스뱅크스 극장	○ 인천 출발 (10시 45분) ○ 런던 도착 (14시 15분) ○ <청춘의 십자로> 공연 리허설 참석 ○ 주영한국문화원 주최 만찬 참석
2.7(목)		○ <청춘의 십자로> 공연 리허설 참석 ○ <한국초기영화 특별전> 오프닝 리셉션 참석 ○ <한국초기영화 특별전> 프로그램 개막식 참석 - 개막식 강연 <Discovery of colonial Korean films and its meaning> 진행(* 발표 자료 파일 참조) - <청춘의 십자로> 공연 참석 ○ <한국초기영화 특별전> 석식 리셉션 참석

2.8(금)	영국 런던 BFI 사우스뱅크스 극장 및 메인 사무소	○ BFI 사우스뱅크스 극장/영사실 견학(진행: 프로그램/리서치 매니저 Simon Duffy) ○ BFI 라이브러리/미디어테크 견학(진행: 라이브러리/미디어테크 팀장 Emma Smart) ○ BFI 오피스 시설 견학 및 미팅(참석: 프로그램 팀장 Robin Baker, 컬렉션/인포메이션 팀장 Angela Doane) ○ BFI 아이맥스 시설 견학 및 <알리타: 배틀 앤젤> 관람
2.9(토)		○ <어화>(필름 상영) <미몽>(DCP) 상영 참석
2.10(일)		○ 주영한국문화원 2019년 <런던한국영화제> 업무 협의(필름 큐레이터 조현진) ○ 볼로냐북원영화제 '한국영화 섹션' 업무 협의(디렉터 Ehsan Khoshbakht)
2.11(월)	주영한국문화원	○ 주영한국문화원 견학 및 업무 협의(필름 큐레이터 조현진)
2.12(화)		○ <집 없는 천사> <한 성심의 힘> 상영 전 영화 해설(* 발표 자료 파일 참조), 상영 참석, 질의응답 진행
2.13(수)		○ BFI 라이브러리/미디어테크 견학 및 이용
2.14(목)		○ BFI 미디어테크 아카이브-컬렉션 조사
2.15(금)		○ <어화> <미몽> 상영 전 영화 해설(* 발표 자료 파일 참조) 및 상영 참석 ○ 행사 종료 후 질의응답 진행
2.16(토)		○ BFI 라이브러리/미디어테크 견학 및 이용
2.17(일)		○ BFI 미디어테크 아카이브-컬렉션 조사

2.18(월)	○ 전체 행사 평가 및 향후 업무 협업 회의(주영 한국문화원 큐레이터 조현진) ○ 일제시기 조선영화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의 발표 및 토론 참가: 케이트 테일러(세펠드 대학 교수), 백문임(연세대 교수), 이화진(연세대 강사) 등 ○ <War System of Joseon Cinema: Colonial Korean Second-generation filmmakers and the film policy> 발표(* 발표 자료 파일 참조)
2.19(화)	○ 런던 출발(12시 55분)
2.20(수)	○ 인천 도착 (8시50분)

2. 출장내용

1) BFI 개막식 프리젠테이션(2019.2.7)

- ‘식민지기 조선영화 발굴과 의미’에 관해 30분 발표 진행
- 2004년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의 일제시기 조선영화 발굴 작업 경과와 의미, 필름 자체의 기록(오프닝 크레딧, 검열 번호)을 통해서 추적해 본 이동 경로, 발굴 작품들에 대한 역사적, 영화사적 의미에 대해 소개하였고, 조선영화 발굴 필름을 통해서 식민지/제국의 관계상을 새로운 각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설명함. (* 붙임: ‘BFI 개막식 발표’ 파일 참조)
- 참석한 영국인 관객들의 경우, 해방 이전 동북아시아 지형과 그 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으나, 한국의 식민지 경험과 당시 영화 제작 과정, 특히 중국전영자료관에서 조선영화 필름을 발굴하게 된 역사적 배경 등에 관해 흥미로워했음.

2) 주영 한국문화원 상영 행사(2019.2.12.)

- <집 없는 천사>와 <한 ‘성심’의 힘>에 관해 30분 강연 진행
- 중국전영자료관에서의 조선영화 발굴 과정, 최인규 감독의 바이오그래피, <집 없는 천사>의 제작 과정, 고려영화사의 제작 관련 에피소드, 일제의 검열 과정, 식민지/제국 구도에서 영화의 의미 등을 설명함.
- <한 ‘성심’의 힘>의 제작 정보, 조선총독부의 문화영화 제작, 러시아 고스필모폰드에서의 발굴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함. (* 붙임: ‘KCCUK 영화 해설-집없는 천사 등’ 파일 참조)
- 주영 한국문화원 관계자에 의하면, 사전 신청으로 약 120명이 접수하였다고 함. 일반적인 행사 시, 사전 신청자의 50~60% 정도가 참가하는데,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자가 거의 다 참석할 정도로 성황이었음. 관객층은 영국인 노년 남성 관객들이 많았

으며, 한국학을 전공하는 영국 교포 학생들도 다수 참가함.

- 일부 참석자의 경우 BFI ‘초기 한국영화 특별전’ 상영 행사와 출장자의 개막식 프리젠테이션을 청강한 후 이 행사에도 참가했다고 함.
-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활한 지식 전달을 위해 문화원이 준비한 전문 통역자를 활용하였으며, 공식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개별적인 질문이 이어짐. 특히 한국의 식민지 경험에 관한 질문이 많았고, ‘초기 한국영화 특별전 시즌2’의 개최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들이 있었음. 이번 BFI ‘초기 한국영화 특별전’의 경우 일제 말기 국책영화 중에서 조일 합작영화 등 제외한 작품들이 있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주영 한국문화원 라이브러리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이 제작하고 발송한 고전영화 컬렉션 DVD/블루레이 및 우수영상물 다국어자막 DVD 박스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런던의 민간 시네마테크(예, Closeup Cinema) 시설에도 발송해 준다면 해외 한국고전영화 보급에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청취함.

3) BFI 상영 행사(2019.2.15)

- 상영 전 <미몽>과 <여화>에 관해 20분 해설 진행
- <미몽>의 제작 배경(조선영화인과 일본영화인의 협업시스템으로 진행된 경성촬영소), 제작 관련 정보, 조선 토기영화의 문법, 조선영화의 장르 공식 등에 대해 설명함
- <여화>의 제작 배경(동인지 제작 후 일본 쇼치쿠 영화사 후원), 제작 관련 정보, 안철영 감독 바이오그래피, 1930년대 중후반 조선영화 미학, 당시 조선 ‘로컬 컬러(향토색)’ 영화에 대한 평가 및 제국의 수용 등에 대해 설명함. (* 붙임: ‘BFI 영화 해설-미몽 여화’ 파일 참조)

4) 패넬 디스커션(2019.2.18.)

- <반도의 봄> 상영 후 연계 행사로 일제시기 조선영화에 대한 학술 발표 및 토론, 청중 질의응답을 진행함.
- 세펠드 대학의 동아시아영화 전공 케이트 테일러 교수의 진행으로, 출장자, 이화진(연세대 강사), 백문임(연세대 교수)의 순으로 발표함
- 정종화는 ‘2세대 조선영화인과 전시 체제(Colonial Korean Second-generation filmmakers and War System of Joseon Cinema)’에 관해 발표함.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영화 제작 지형에서 2세대 조선영화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일본영화 스튜디오 출신의 대표적인 영화인들과 창작 작품, 일제 국책영화 장과 예술가적 열망 사이 조선영화인들의 분열적 사고 등에 대해 설명함. (* 붙임: ‘BFI 패넬 디스커션-2세대 조선영화인’ 파일 참조)
- 이화진은 ‘조선화하기와 조일 합작영화(Coloring “the Koreanness” and Co-production Films between Japan and colonial Korea)’에 관해, 백문임은 ‘일제 말기 지원병과 멜로드라마(Volunteer Soldiers and Melodrama in Late Colonial Period)’라는 주제로 발표함.

- 질의응답 시간에는, <반도의 봄>의 배경 정보에 관한 질문부터, 일제시기에 조선에서 상영된 외국(유럽)영화, 일본영화계와의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짐.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로비에서 개별 질문들이 이어짐. 소아즈 박사과정 학생의 조선영화 관련 사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특히 한 영화 애호가와 <집없는 천사>(1941)와 <보이스 타운Boys Town>(1938)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인상적이었음.

5) BFI 미디어테크

- BFI 사우스뱅크의 1층 로비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라이브러리 공간과는 별도 운영 중. BFI 아카이브 컬렉션을 모두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임.
- * 현재 59,161편의 작품이 총 92개의 컬렉션으로 묶여 있음.
-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관람객부터, 상영 전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험해 보는 관람객까지 이용 스펙트럼이 다양함.
- 오픈되었지만 구획된 공간의,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헤드폰으로 감상하는 방식임. 모니터는 터치스크린 방식
- 아카이브 컬렉션의 영상 검색은 미디어별, 장르별, 연대별, 주제별, 캐스트(방송국), 러닝타임, 국가별로 가능함.
- 전체 영상은 A-Z, Z-A, 신구순, 구신순 등으로 소팅이 가능함.
- 전체 컬렉션(주제별 작품 묶음)은 특집 컬렉션(5개)과 전체 컬렉션(93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트로 화면에서 전체 컬렉션을 일별해 볼 수 있음.
- 실제 구동되는 시스템 및 포함 컬렉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붙임: 'BFI Mediatheque VOD 화면' 파일 참조.

6) 총평

-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 해외에서 한국고전영화를 알리는 첫 번째 대형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됨. 시네마테크팀과 연구전시팀의 협업을 통해 전 해부터 미리 행사를 준비한 것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기반이 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영국의 대표적인 필름 아카이브 시설 및 영화 진흥 기구인 BFI에서, 영국의 일반 관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 출장자의 경우, 4번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영국 현지에서 영문 발표 원고 및 영문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였음. 담당자의 발표 행사에 참가한 영국인 관객들의 경우, 담당자가 네이티브 수준의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영어 실력보다는 발표 내용에 중요한 정보와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출장자의 발표가 한국영상자료원의 위상과 한국고전영화의 역사성을 알리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함.
- 향후에도 우리원의 직원들이 국제 행사 및 심포지엄 등에서 영어 발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의지 및 기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끝.